

초기 염상섭의 아나키즘 수용과 탈식민적 태도*

- 잡지 『삼광』에 실린 염상섭 자료에 대하여 -

한 기 형*

< 목 차 >

- I. 목차
- II. 『삼광』의 체제와 수록자료
- III. 염상섭 자료의 분석
- IV. 맺음말

<Abstract>

Yom Sang-Sup's Acceptance of Anarchism
and Post-Colonial Attitude During His Early Period
: on Yom Sang-Sup's Writings in *Samkwang*

Han, Kee-Hyung

Yom Sang-sup's early writings published in a journal, *Samkwang* include significant information on his political and social ideas as well as his literary activities in Japan in the aftermath of *1st March Movement*. He was inclined to anarchism in 1919 and this ideological trend was related to anarchist group composed of Hwang Suk-u etc. This is quite important clue to review his later literary traces. In my estimation, the prior studies

* 이 논문은 2002년도 성균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of him seem to be left in a somewhat obscure state because they have proceeded without the clear analysis of his ideological specificit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Yom Sang-sup and anarchism is connected with re-examination of the various literary activities including *Pyuhu* in the early 1920's in the context of the social ones of the period, and also supposed to provide the precis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he critically kept his distance from Korean proletarian literary m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atic issue of Yom Sang-sup and anarchism makes a new wave onto the framework and the perspective in Korean modern literature; that is, it presents the necessity to revise the way we've understood that proletarian literature is the antithesis of right-wing nationalistic literature, so far. In other words, the idea of Yom Sang-sup and anarchism adds the third perspective to the dualistic topography filled with left-wing proletarian literature versus right-wing nationalistic literature, and thus, suggests the possibility of multiple consideration beyond the tendency of Korean modern literature studies captured by Lim Wha's framework since 1980's. Such all exceed the simple positivistic boundary. Because they involve a demand to synthetically reform features and interrelation of the motivators which have constructed and progressed Korean modern literature.

I. 머리말

193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일련의 문학사론에서 임화는 염상섭의 작가적 위상에 대한 주목할만한 언급을 남겼다. ‘자연주의 시대의 왕도를 수립하고 조선소설사상 찬연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작가’, ‘초창기 문학 가운데 가장 소설가다운 소설가’, ‘진실로 산문의 정신에 투철한 유일한 작가’ 그리고 ‘신문학 작가 중 춘원에 대비되는 유일한 절정’과 같은 표현들이 염상섭의 역사적 지

위에 대한 임화의 판단을 담고 있는 문구들이다.¹⁾ 그러나 임화의 그러한 상찬은 초역사적인 것은 아니어서 항상 어떤 제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제한은 염상섭의 소시민적 계급성과 그로부터 연유한 사상적 한계라는 이념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실 상섭은 프로문학 십년의 苦闘史가 『고향』의 작가 이기영을 발견하기까지 조선문학사상 최대의 작가였다”²⁾라는 규정적 언어 속에는 염상섭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임화의 역사적 판단이 들어 있다. 임화에게 있어 염상섭은 사회주의 문학이라는 새로운 단계 직전에 존재한 최상의 작가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임화는 「제야」와 「만세전」을 “20년대 조선 자연주의 문학이 소유하는 예술적 보옥으로써 그 뒤에 올 프로문학에 물려줄 최량의 유산”(「서설」)이라며 프로문학과의 계기적 연결을 암시하면서도 염상섭 자체를 프로문학의 자장 안에 포섭된 작가로 설명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염상섭에 대한 정신적 신뢰 이상의 문제가 가로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을 무자비하게 폭로’하는 염상섭의 ‘부정적 리얼리즘’이 ‘조선 사실주의의 건설자’의 조건은 충족시킬 수 있었지만 그것이 끝내 ‘역사적 발전의 필연적 도정에 대한 무이해와 무자각’(「서설」)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에 역사의 새로운 전망을 포착할 수 없었다는 것이 염상섭에 대한 임화의 궁극적인 결론이었다. 사적유물론의 이념 기준에 의해 염상섭의 문학은 문학의 미래에 대한 향도의 자리에서 배제되었던 것이다.

임화는 염상섭의 제한성을 표상하기 위해 ‘폐씨미즘’이라는 낭만적이며 감상적 용어를 사용하였다. 임화는 이를 부르주아지가 주도하는 조선적 근대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절망의 결과로 설명하였는데,³⁾ 이 표현은 염상섭 문학

1) 임화, 「소설문학의 20년」, 『동아일보』1940.4.13~4.16(임규찬·한진일 편, 『신문학사』, 한길사, 1993, 393~396면)

2) 임화, 「조선신문학사론서설」, 『조선중앙일보』, 1935.10.26(임규찬·한진일편, 『신문학사』, 345면)

3) “상섭의 이러한 폐씨미즘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비견 같아서는 멀리서는 신문화 수입 이래의 전 성과에 대한 부정이고, 가까이 1918년으로부터 시작되어 일 시민이나 인텔리겐차의 제반 요구를 聽許해 주는 듯한 정황의 귀결에 대한 비판일 것이다.(…) 사회전반의 반봉건의 강한 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원은 근

에 대한 비판의 용어라기보다 그를 문학사의 새 단계 속에 포섭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반영하는 우호적 비평에 가깝다. 여기서 우리는 임화가 사회주의 문학의 전단계에 염상섭을 묶어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정신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음을 느끼게 된다. 염상섭을 배제한 한국 근대문학사의 구성이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를 1930년대 후반의 임화는 직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맑스주의적 역사이해의 길을 포기하지 못했던 임화에게 염상섭은 끝내 아쉬움의 영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임화가 말한 ‘폐씨미즘’의 미학이 염상섭에 고유한 것이었다기보다 1920년대 초반 문학에 내재해있던 보편적 심리 자질이었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임화에 의해 문학사의 새로운 단계로 이해된 프로문학 초기의 이기영, 조명희, 최서해 등의 작품에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극단의 절망적 언어와 만나게 된다.⁴⁾ 따라서 ‘폐씨미즘’의 존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의 ‘폐씨미즘’인가 라는 점이 더욱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임화는 염상섭의 ‘폐씨미즘’이 그의 이념적 한계와 관련된 실존적 절망의 언어로 이해했지만 그것이 세계를 보는 또 다른 눈과 사상의 결과일수 있다는 것, 혹은 고도의 전략적 기획의 소산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이 점은 염상섭의 ‘폐씨미즘’과 신경향파의 ‘폐씨미즘’을 비교할 때 느껴지는 지적 이지의 작용과 자연발생적 비판 토로의 차이와 연관된 사항이다. 즉 임화의 유물론적 일원론의 분석틀에 포착되지 않는 사유와 인식이 염상섭의 초기문학에 구현되었을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919년 일본에서 발간된 잡지 『삼광』의 염상섭 자료들은 이러한 임화의 문학사적 구도를 실증적인 차원에서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초기 염상섭과 아나키즘, 그리고 청년 염상섭의 기발하고 적극적인 탈식민적 전략에 근거한 작품활동의 흔적들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대적 시설을 기원했으면 동인은 요구했으나 상섭은 이미 실시된 성과를 검토하고 또 세밀히 계량했다. 그의 폐씨미즘은 이 검토와 계량에서 나온 것이다.”(임화, 「소설문학의 20년」, 『신문학사』, 한길사, 395면)

- 4) 한기형, 「임화의 문학사 서술관점에 나타난 몇가지 문제」, 『백사이우성교수정년기념논총』, 창작과비평사, 1991.

이러한 사상경향과 작품활동은 임화에 의해 이른바 ‘폐씨미즘’의 걸작으로 평가된 『만세전』의 창작보다 선행해 이루어진 일이다. 요컨대 염상섭의 ‘폐씨미즘’은 본래부터 그의 창작경향을 규정했던 계급적·선형적 자질은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1919년 염상섭의 사상 경향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대세로 승인하는 시대정신의 경향성 속에 놓여 있었다. 『삼광』의 자료는 3.1운동을 겪으면서 가파른 사상적 변화를 겪는 염상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염상섭 문학의 문학사적 성격에 대한 재구도화를 목표로 작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 이후 구심력이 강화된 임화의 문학사론에 대한 해체적 이해의 가능성도 확인해보려고 한다. 우파적 민족문학과 좌파적 프로문학이라는 구도 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했던 아나키즘의 문학사적 영향력에 대한 시론적 모색을 통해 근대문학사 이해의 새로운 지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재 필자의 판단이다.

II. 『삼광』의 체제와 수록자료

『三光』은 蘭波 洪永厚를 ‘편집검 발행인’으로 하여 1919년에서 1920년에 걸쳐 동경에서 발간되었다. 현재 확인 가능한 『삼광』은 1919년 2월 10일 간행된 창간호, 1919년 12월 18일 발간된 1년 2호, 1920년 4월 15일에 나온 2년 1호 등 총 3호이다. 이후의 계속 발간 여부는 불분명하나 3호를 끝으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⁵⁾ 창간호가 1919년 2월 10일 발행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 참고로 『창조』 창간호가 동경에서 발행된 것이 1919년 2월 1일, 『신청년』 창간호가 국내에서 간행된 것이 1919년 1월 20일이다. 3.1운동을 한달 남짓 남겨두고 동경과 국내에서 3개의 잡지(혹은 동인지)가 동시에 창간된 것이다. 3.1운동 직전에 창간된 이러한 청년잡지의 존재는 3.1운동 이전부터 있었던 다양한 청년활동과 3.1운동, 그리고 근대문학의 긴밀한 연관성을 암시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⁶⁾

5) 「난과 홍영후 해적이」 『나라사랑』 52, 외솔회, 1984.9, 7면.

6) 3.1운동과 근대문학의 관계에 대한 필자의 최근 연구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

홍영후는 1898년 경기도 화성군 남양면 활초리에서 洪淳의 차남으로 태어났다. 12세 때인 1910년 황성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 입학, 1912년 졸업하고 1913년 9월 다시 조선정악전습소 서양학부에 입학하여 金仁湜에게서 바이올린과 樂典大要 등을 배웠다. 1915년 조선정악전습소를 수료하고 1917년까지 같은 학교의 교사로 근무했다. 19세 때인 191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다 그만두고 1918년 4월 동경 우에노음악학교에 유학을 떠나게 된다.⁷⁾ 따라서 홍영후의 『삼광』 발행은 그의 도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된 것이다.

세 가지 빛 ‘삼광’은 곧 음악·미술·문학을 뜻하니 홍영후는 종합예술지의 간행을 의도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홍영후가 음악·미술·문학을 예술이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사고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근대적 제도로써 예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명확히 자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는 예술을 근대 국민국가의 요체로 이해하였다. 예컨대 “西哲의 金言에 ‘음악은 국민의 실력이다’하지 안었으며 동양 선각자의 名句에 ‘移風易俗함에는 樂에 勝할 자 없다’고 하지 안었습니가. 그럼으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고 泰西의 新문화를 가져오라 할진대 불가불 음악의 힘을 빌지 아니치 못하겠다고 합니다.”⁸⁾라는 표현 속에는 근대 서양의 예술을 통해 민족적 각성을 추구하는 실력양성론에 근거한 ‘문화민족주의’의 각오가 뚜렷하다.

최남선의 잡지 발간과 조선광문회 활동 등으로 대표되는 1910년대 문화민족주의 경향은 한국 근대문화제도의 형성에 의미있는 기여를 했다. 하지만 그 문화주의적 편향으로 인해 필연적인 한계를 노정하기도 했는데 홍영후는 그러한 노선을 충실히 이어받고 있었다.⁹⁾ 그런데 아나키즘과 관련된 황석우, 염상

다. 한기형, 「잡지 『신청년』 소재 근대문학 신자료」,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한기형, 「근대잡지 『신청년』과 경성청년구락부」, 『서지학보』 26, 서지학회, 2002/ 한기형,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

7) 「난과 홍영후 해적이」, 6~7면.

8) 「창간의 사」 『삼광』 창간호, 1면.

9) 현재 홍영후의 1919년 전후한 이력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점이 많다. 「난과 홍영후 해적이」에 따르면 홍영후는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 경성악우회의 주간이

섭 등이 참여하면서 『삼광』의 이념적 지형도는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삼광』을 일관된 사상의 기관지로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먼저 『삼광』 1~호의 목차를 살펴보기로 하자.

<1호>

創刊의 辭/ 祝辭(李丙燾)/ 音樂이란 何오(洪永厚)/ 人文 發達의 三大時期(Y.H 生)/ 丁巳의 作(詩, 象牙塔)/ 音樂上의 新知識(蘭坡)/ 부슬비 오는 밤(詩, 솔씨 生)/ 서운게신 K형체(ㄷ.ㄹ.ㄱ)/ 金牌의 行方(都禮美)/ 바람과 빛(ㅎ.ㅇ.ㅎ)/ 胡蝶 과 蜘蛛(八克園)/ 사랑하는 벗에게(-도레미생)/ 理想的 結婚(柳志永)/ 編輯餘言

<2호>

卷頭小言/ 三光頌(廉尙燮)/ 唱歌 遊戲의 教育上 效能(洪永厚)/ 米國 詩壇의 鬼才 (春陽生)/ 斷章 五篇(詩, 象牙塔)/ 獸活死獸(柳和言)/ 곰보의 노래(詩, 石松生)/ 사랑하는 벗에게(포스토예프스키作, 도레미생譯)/ 音樂逸話(蘭坡生)/ 喜歌劇 마 스콧테(에드몬드 오-드란作)/ 象牙塔兄의(霽月)/ 理想的 結婚(八克園)/ 月光의 曲(秋江生)/ 質疑應答欄/ 編輯餘言

<3권>

第二年을 迎喜/ 二重解放(廉尙燮)/ 音樂上 音의 解說(洪永厚)/ 마-크스와 엔겔 스의 小傳(春陽生)/ 詩話(黃錫禹)/ 苦惱의 旅(詩, 黃錫禹)/ 사나히나?(詩, 石松 生)/ 舶來貓(霽月)/ 짜른 生命(詩, 李鍾肅) / 貧人(포스토예프스키作, 도레미생 譯)/ 釋王寺遊記(蘭坡生)/ 理想的 結婚(八克園)/ 喜歌劇 마스콧테(에드몬드 오- 드란)/ 處女魂(都禮美)/ 質疑應答/ 編輯餘墨

위의 목차를 검토할 때 상당수의 글은 홍영후의 것이다. 이점에서 『삼광』의 중심인물이 홍영후인 것은 분명하다. 홍영후 외에 염상섭이 「삼광송」(2호),

되어 활동했고 1920년 동경으로 다시 돌아가 복학하려고 했으나 학교측이 3.1운 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19년 『매일신보』에 수필 「北遊雜記」(8.11-19), 소설 「허영」(9.3-11.18)을 연재했으며 『매일신보』 기자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특히 후자가 사실이라면 3.1운동 참여로 복학이 불허되었다는 연보의 기술은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상아탑형씨」(2호) 「이중해방」(3호), 「박래묘」(3호) 등 4편, 황석우가 「정사의 작」(1호, 시 3편), 「단장 오편」(2호, 시 5편), 「苦惱의 旅」(3호, 시 2편) 및 「詩話」(3호), 유지영이 「胡蝶과 蜘蛛」(1호) 「默活死默」(2호), 「이상적 결혼」(희곡, 1-3호), 김형원이 「곰보의 노래」(시, 2호), 「사나회냐?」(시, 3호), 李鍾肅이 「짜른 生命」(시, 3호) 등을 발표했다. 그밖에 春陽生의 「米國 詩壇의 鬼才」(2호)와 「마-크스와 엔겔스의 小傳」(3호), 秋江生의 「月光의 曲」(3호), 그리고 이병도의 간단한 「축사」(1호)가 있다.

『삼광』의 발행 주체는 1호의 경우 ‘재동경조선유학생악우회’였고 2호부터는 ‘三光社’로 개편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3호 「편집여묵」(57면)의 “본지는 원래 朝鮮留學生樂友會의 경영이던 것을 금번 편의상 삼광사의 명의로 발행하게 되었습시다. 그러하오나 악우회와 아조 절연을 함은 아니옵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그갓치 한 것이오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삼광』에 글을 기고한 사람은 홍영후, 염상섭, 황석우, 유지영, 김형원, 이종숙 그리고 춘양생과 추강생 등인데 이들의 관계도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황석우, 염상섭, 김형원은 모두 보성학교 출신이며 특히 김형원은 염상섭의 1년 후배였다. 두사람은 1920년 4월 『동아일보』가 창간되면서 각각 사회와 정치를 담당하는 기자로 초빙되었다.¹⁰⁾ 유지영은 당시 희곡 작가로 활동한 인물이며 이종숙 등은 확인하지 못했다.

3호 「편집여묵」(58면)의 신신낭독회(1920.3.22, 종로청년회관) 소개 가운데 “本社 同人 李丙燾, 黃錫禹 兩君의 式辭와 開會辭가 잇섯고 洪永厚君의 바이올린 獨奏가 잇슨 후 李一, 南宮璧, 李鍾肅 女史, 金仁湜, 黃錫禹, 卞榮魯, 洪永厚等 諸氏의 新詩 朗讀이 잇섯난대 分外的 成功을 ्ह은 同人들의 感祝을 ्ह은 바시오며”라는 표현이 있다. 여기서 『삼광』이 동인 체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동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포착되지 않는다. 조선유학생악우회 회원을 동인이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다. 보다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 사항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삼광』의 중심인물인 황석우가 유명한 ана키스트였다

10) 주근옥, 『석송 김형원 연구』, 월인, 2001, 29~30면.

는 것, 그리고 염상섭 또한 아나키즘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잡지 『삼광』이 단순한 예술 교양지에 그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삼광』의 계보는 『폐허』로 이어지는데 앞서 거론된 염상섭, 황석우, 이병도, 남궁벽, 변영로는 이후 『폐허』의 동인이 되었다. 이병도는 유학시절 황석우, 홍영후와 함께 『曉鐘』이란 잡지를 기획하기도 했다.¹¹⁾ 이점에서 볼 때 『삼광』을 통해 『폐허』의 맥아가 싹트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¹²⁾ 『삼광』의 발매소가 高敬相이 운영했던 廣益書館이며 『폐허』의 후원자가 고경상이었던 것¹³⁾ 등도 그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그런데 아나키스트 황석우가 이렇듯 초기 문단의 형성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가볍게 보아 넘길 문제가 아니다.¹⁴⁾ 왜냐하면 문학과 사회운동의 관계를 포함해 1920년대 문학사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광』과 『폐허』의 연관성 및 1920년대 초반의 사회운동과 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용복 교수의 문제제기가 이미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아나키즘과 문학의 관계를 거론한 것은 조교수의 중요한 학적 성과라고 생각한다.¹⁵⁾

11) 이병도, 『成己集』, 정화출판문화사, 1983, 219면.

12)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26면.

13) 이병도, 앞의 책, 244면.

14) 『신청년』 4호(1921.1.1)에 기고된 황석우의 「頌」(부제- 『신청년』 4호에 송하야)은 2기 『신청년』의 출발을 축하하는 시이다. 그런데 나도향, 박영희, 최승일 등을 중심으로한 2기 『신청년』은 『백조』의 전신에 해당한다(한기형, 「『신청년』과 경성청년구락부」 참조). 이들 그룹에 축시를 주고 격려한 것에는 문단과 사회운동을 연결하려했던 황석우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이 작품의 핵심어인 ‘부활의 새벽’이란 표현은 매우 깊은 사회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

15) “말하자면 아나키즘이 단순히 ‘카프 청산기’에 사상적 차이로 떨어져 나온 자유주의자들 집단의 이념이 아니라 카프의 전단계에서 사상적 기저로서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초창기 근대문인들의 사상적 거점이 상당부분 아나키즘을 포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확인한다면 근대문학 초창기의 문학사적 사실을 상징주의 모방의 담론으로 전일화 하는 태도나 아나키스트들을 카프 맹원들 중 부수적인 인물들로 이해해 온 그간의 논의에 반성적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조영복,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21, 우리말글학회, 2001)

한국근대문학의 성격을 아나키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조영복 교수의 입론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탈현실과 현실 참여라는 이분법적 관점에 근거한 기존의 단선적이며 정태적인 근대문학사 이해의 구도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촉발한다. 그리고 『삼광』의 염상섭 글은 그러한 연구과제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삼광』은 본래 월간지로 준비되었으나 결국 3호를 내는데 그치고 말았다. 이는 가혹한 일제 검열제도의 탓이었으니 “말은 월간이라 하고 춘삼월에 염치없이 나왔다가 夏暑秋涼을 다 격고 다시 장근 一年만에 나오게 되니 엇더한 가책을 하시더라도 감수할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본의가 아니라 역시 대세의 소치인줄만 알려주시면 幸甚이라 합니다”(「편집여언」 2호, 57면)라는 말 속에는 검열 탓에 발간되지 못한 저간의 사정이 우회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밖에 “본지는 신년호을시다. 전호부터 신년호에는 쓸다운 것을 여러분 압해 내여 뵈캬다고 豪語는 하엿지어만는 역시 별 수가 업시 되엿습니다그려. 우리에게는 매사 매물에 구애가 만코 부자유흔 것이 만습니다. 두말 할 것 업시 都是, 不如意합니다”(「編輯餘墨」 3호, 57면) 라거나 “본지는 신년호로 편집하야 정월 하순이 발행코자 하옵던 것인 바, 본사의 엇지할 수 업는 사정으로 인하야, 얼마동안 인쇄를 정지케 하엿습니다”(「편집여묵」 3호, 58면)등도 검열과 발간 횃수·발간 시기의 상관성을 알게 하는 자료들이다. 『삼광』에 대한 검열의 원인은 문제되는 자료들이 모두 삭제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하다. 다만 春陽生의 「마-크스와 엔겔스의 小傳」(3호)에서 보여지듯 잡지 편집에 일정한 사회주의적 경향성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핵심적인 기고자인 황석우, 염상섭 등의 아나키즘적 혹은 반일적 경향 때문일 수도 있다.¹⁶⁾

Ⅲ. 염상섭 자료의 분석

16) 식민지시대를 연구하는데 검열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식민지 시대의 한국 근대문화가 항시 어떤 결여태의 모습으로 느껴지는 것은 확실히 검열의 압박과 관계된 것이며 따라서 검열이란 常數를 고려하지 않고 식민지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삼광』에 실려있는 염상섭의 글은 이미 제시한 것처럼 「삼광송」(2호), 「상아탑형씨」(2호) 「이중해방」(3호), 「박래묘」(3호) 등 총 4편이다. 이들은 알려져 있는 염상섭 자료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삼광송」은 『삼광』의 발간을 축하하는 내용이며 「상아탑형씨」는 초기 염상섭의 문학관이 집약되어 있는 글이다. 「이중해방」에는 1919년 후반 염상섭의 사회·정치적식이 드러나 있다. 특히 「상아탑형씨」와 「이중해방」에는 1919년 당시 염상섭과 아나키즘의 관계를 짐작케 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가장 문제적 자료는 「박래묘」이다. 「박래묘」는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吾輩は猫である)를 패러디한 풍자소설이다. ‘물 건너온 고양이’(舶來猫)라는 제목부터가 그러한 풍자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소세키의 작품 자체가 풍자문학인데 「박래묘」는 그 작품을 패러디했으니 결국은 이중풍자이다. 당대 일본의 국민작가를 공격하여 제국 일본에 의식적인 도전을 시도한 이 소설은 염상섭의 탈식민적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그간 염상섭 연구사에서 확인은 되었으나 관심의 대상은 되지 못했다. 염상섭 연구의 선편을 잡았던 김종균 교수는 염상섭 작품목록을 작성하면서 「‘정사의 작’과 ‘이상적 결혼’을 보고」(「상아탑형씨」의 부제)를 평론에 분류하고 「박래묘」는 「삼광송」 「이중해방」과 함께 ‘시·수필·수상·수감·기타 잡문 목록’에 배치한 후 ‘소설 형식을 빈 우화소설 未完’이란 애매한 단서를 달아놓았다.¹⁷⁾ 김종균 교수는 이 작품을 염상섭 소설목록에 올리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표본실의 청개고리」가 ‘나의 처녀작’이라는 염상섭 자신의 단정적 술회도¹⁸⁾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나 역시 미완결 작품인 점이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이후 출간된 김윤식 교수의 『염상섭연구』(서울대출판부, 1987)는 김종균 교수의 자료목록을 그대로 이어받아 별다른 교정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박래묘」는 계속해서 잡문의 영역에 분류되게 되었다. 원자료에 대한 엄밀한 재검토가 있었다면 바로잡아질 수 있는 일이 그대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삼광」과 관련된 염상섭 작품 한편이

17) 김종균, 『염상섭연구』, 고려대출판부, 1974.

18) 염상섭, 「나의 『폐허』시대」, 『신천지』1954.2(『염상섭 전집』 12, 민음사, 211면)

더 있었다.

본지에 게재키로 예고하였던 金秋江君의 「이상훈 바이올린」은 편집상 관계로 래호로 미루었습니다. 또 그 외에 霽月군의 「屠獸者」 일편도 본지에 게재코자 하였더니 時事에 便한 嫌이 有하야 정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도가 우리의 본의는 아닌 줄을 深諒히 주십시오.(「편집여묵」 3호, 57면)

인용문의 내용은 염상섭의 「도수자」가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수자」란 작품은 그 제목의 느낌상 소설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본래 『삼광』 3호에는 두 편의 염상섭 소설이 게재될 예정이었던 것이다.

이 글은 편의상 『삼광』에 실려있는 4편의 자료를 둘로 나누어 검토하고자 한다.

1. 「삼광송」 「상아탑형제」 「이중해방」

-민족의 발견, 문학의 주체화, 그리고 아나키즘

「삼광송」은 「민족의 발견」과 관련된 염상섭의 내적 심리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예컨대 “「삼광」! 「삼광」! 「삼광」아! 未(羊)년 陽春에 瑞氣 光風이 어리어서 나왔스니 너는 평화의 서광이오, 묘향산 뚝흔 정기 골수에 깎히 매쳐 檀木下에 비쳤스니 너는 槿域의 國光이오, 이천만의 우리 동포 같 바를 지도하니 너는 暗夜의 月光이 아니냐?”와 같은 구절은 과잉감정에 사로 잡혀 있는 염상섭의 내면을 보여준다. 절제되지 않은 감정은 역시 3.1운동의 흥분이 채 가라앉지 않은 탓이다. 염상섭은 3.1운동을 사전에 준비한 2.8독립선언 그룹과는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었다.¹⁹⁾ 따라서 중심부 유학생들 보다 주변인²⁰⁾ 염상섭

19)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87, 50~58면/ 김윤식, 「『염상섭연구』가 서있는 자리」 『염상섭문학의 재조명』, 새미, 1998.

20) 「상아탑형제」(『삼광』 2호)의 “果然 나는 철이 날만한 때부터 近者까지 五六年間을 朝鮮青年과 絶緣을 하고 村里에서 혼자 無用한 煩悶으로 歲月을 보내엿을 뿐 안이라, 꿈을 꾸고 잊섯소이다”와 같은 구절은 당시 염상섭이 지녔던 자폐적 심리의 일단을 느끼게 한다.

에게 준 3.1운동의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다.

그런데 염상섭의 그러한 흥분은 『삼광』 자체가 만든 것이기도 했다. 3.1운동이 만든 공간을 통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경에서 중심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던 염상섭에게 가장 아쉬웠던 것은 자신의 생각과 역량을 표출할 민족적 미디어의 존재였다. 막 정치적 각성을 시작한 한 조선인 작가 지망생이 조선어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낼 회로를 발견한 것은 단순한 기쁨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문예의 형식으로만 자기 존재를 기술하도록 강요된 정황 속에서 문예지를 표방한 『삼광』의 존재는 더욱 돋보였을 것이다.²¹⁾ “아! 壯한 너 貴한 너 重한 너 애닦은 너, 나는 너를 안꼬 心琴의 波動과 甯김을 억제치 못하였다”는 감정의 토로는 그러한 정황과 관련된 것이다. 사실 염상섭이야말로 3.1운동의 영향권 속에서 작가로 나선 전형적인 인물이었다. 염상섭이 자신의 회고에서 여러 차례 3.1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것은²²⁾ 그 자신이 3.1운동의 세례를 통해 작가로 나서게된 사정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²³⁾ 따라서 보다 구체적 지점에서 3.1운동과 초기 염상섭의 관계가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21) 식민지 시대 문예물은 그 사회적 조건에 의해 항시 일정한 정치성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단순한 연애소설도 민감한 정치적 알레고리로 읽힐 가능성이 상존했다. 식민권력에 의한 정론적 글쓰기의 차단과 그 결과 이루어진 정치적 욕망의 내면화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욕구는 폭력적으로 조정되어 문예물이라는 좁은 회로 속으로 들어가기를 강요받은 것이다.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줄기차게 나타나는 근대문학의 주요한 특질인 비극적 영탄과 격정적 절규, 자학적 세계관, 극단적 폐쇄미증 등은 그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즉 문예형식의 과도한 정치성예의 침윤이란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문예물 속에 반영되어 있는 시대적 무게 탓에 문예의 사회적 위상은 실제 이상의 평가와 대접을 받게 되었지만 문학 자신은 용량 초과의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된 것이다.

22) 상섭, 「3.1운동 전후와 문학운동」 『평화신문』, 1958.3.1/ 상섭, 「3.1운동 당시의 회상」 『신태양』 19호, 1954.3 등(김종균, 『염상섭연구』, 고려대출판부, 26~27면 참조)

23) 이 점에 대해서는 이보영 선생의 적절한 문제제기가 있었다.(이보영, 『염상섭 문학론』, 금문서적, 2003, 2~3면)

「상아탑형씨」(부제: 「丁巳의 作」과 「이상적 결혼」을 보고)는 1919년 초반 염상섭이 지냈던 문학과 사상경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 염상섭은 특유한 냉정한 어투로 ‘능필달필’과 ‘미문’의 문학경향을 공격했다.

우리는 첫째 문학이란 것은 能筆達筆이거나, 美文을 쓰는 것이 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소이다. 미문을 기려내거나 혹은 달필을 가지고 최고 표준을 삼으면, 하로에 적어도 數三百行을 一二時間 동안에 써내는 신문기자도 대문학가라 하겠소이다. 문장이란 것은 문장 자신으로 第一義일지 모르나, 문학이란 것으로 보면 第二義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의 생활과 아모 교섭이 없으면, 아모리 능란한 미문을 써노왔드라도, 결국은 美裝한 현대 여자요 靑襟에 개똥 싼 것이요 빈탕이 안일지요. 나아가 그의 작—단편소설과 一小書信—을 보고나서 생각한 것이 이것이외다.²⁴⁾

이 글에서 그가 본 ‘단편소설과 소서신’은 누구의 것인가. 글의 앞 뒤 문맥으로 보아 그가 비판하고있는 이른바 ‘대가’는 이광수가 분명하다. 염상섭은 ‘생활과의 교섭’이 없는 미문이란 결국 ‘美裝한 현대 여자요, 靑襟에 개똥 싼 것’이라는 신랄한 표현을 통해 이광수의 문학적 공허감과 허위 의식을 폭로했다. 나아가 염상섭은 2.8독립선언의 중심인물이며 ‘화려하게’ 상해로 망명한 이광수를 학벌과 사소한 명성을 과증시하는 조선인의 폐해가 만든 ‘인조적 천재’, ‘속성문학대가’에 불과한 존재로 몰아붙였다. 또한 “나는 그(이광수-인용자)의 존재를 몰랐노라”는 발언을 통해 1910년대 후반 이광수의 문학활동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염상섭의 표현 속에는 문학을 문학 자체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근대인의 숙명에 대한 명료한 의식이 놓여 있다. 따라서 “다만 우리는 상당한 수련을 싸은 후 정확한 표준으로, 모든 가치를 공정히 비판하여야 하겠다 함이 외다”²⁵⁾라는 태도는 염상섭 문학론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24) 염상섭, 「상아탑형씨」 『삼광』 2호, 38~39면.

25) 염상섭, 「상아탑형씨」 『삼광』 2호, 39면.

우리의 大概는 작품을 대할 제 작품 그 물건과, 작자의 성격, 四圍를 가지고 품평하고 玩味하라하지안코 무엇보다 먼저 그 작자의 학력 여하 또는 명성 여하를 염두에 두고—다시 말하면, 선입견 혹은 成心(마음에 엮어진 불완전한 표준을 가지고)을 토대로 하여가지고 導함으로, 공평함을 일코 혹은 美玉을 가지고도 路邊에 瓦礫갓치 誤想하여, 이따짓 것도 글인가? 시인가? 되지 못하게 어렵게만 써 노으면 누가 보나! 라고 매도하는 일반 경향을 꺾치게 하라함이다. 과연 이러한 관념이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를 지배한다는 것은 큰 불상사요, 또 文運의 진전을 크게 저해함이라 생각합니다.²⁶⁾

문학 자체의 척도에 근거한 평가와 감식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서는 문학의 진전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고 문학적 근대는 달성될 수 없다고 본 것이 당시 염상섭의 생각이었다. 염상섭은 문학을 호사적 관심의 영역에서 이탈시켜 근대적 인식론의 한 분야로, 자율적 자기 질서를 가진 존재로 정초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문학뿐 아니라 독자의 지적 발전은 요원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여기서 황석우는 염상섭에 의해 이광수와 대척적인 자리에 서게 된다. 염상섭은 “나는 적어도 현금 우리나라 사람의 천재라는 표준으로라도 형(황석우-인용자)씨 천재시인이라고 불너드리지 안으면 마음이 편치 안소이다”²⁷⁾라며 이광수를 중심에 놓는 근대문학 주류성을 일거에 부정했다. 이는 근대문학 초기의 풍경으로 매우 의미있는 지점이다. 여기서 염상섭의 목적은 문학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므로 염상섭의 황석우 예찬은 의도적인 행위였다. 황석우가 염상섭의 문학론을 실증하기 위한 사례로 선택된 측면이 크다는 의미이다.

염상섭은 황석우가 『삼광』 창간호에 ‘丁巳의 作’이란 표제로 기고한 「棄兒」 「新我的 序曲」 「擲揄」 등 1917년에 쓰여진 3편의 시에²⁸⁾

26) 염상섭, 「상아탑형식」 『삼광』 2호, 42면.

27) 염상섭, 「상아탑형식」 『삼광』 2호, 40면.

28) ㉠ 「棄兒」: 어머니, 당신의 末兒-아버님의 遺腹-나입니다./ 나는 赤嬰입니다, 眞裸身입니다./ 엇제, 엇제 나를, 단 한아들/ 墓場에, 이런 氷砂에, 내바렸습니
가./ 또, 무섭게, 크게 입버리고 읊니다./ 나의 눈의 우, 압/ 무식무식한 紫鬚의

대해 “나는 위선 그 시를 읽고서, 赤熱이 靑熱 或은 白熱로 變한 물체를 연상하였소이다. 다시 말하면 情이 理智의 支配를 맞는 心境을 거려 보았소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글에서 염상섭이 말하는 ‘정이 이지의 지배를 맞는 심경’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염상섭은 황석우의 시 세 편을 단테의 『신곡』에 기대여 설명했다. 세 마리의 야수에게 길이 막힌 채 숲 속에서 헤매던 단테가 베르길리우스의 인도를 받아 지옥과 연옥을 거쳐 베아트리체를 만나고 드디어 천국에 이른다는 『신곡』의 설정은 빛과 어둠, 죄의 속박과 구원, 야만과 이성 등을 대비적으로 표상한다. 염상섭은 ‘赤嬰, 眞裸身, 遺腹子, 墓場, 氷砂’ 등을 단테가 어두운 산야에 방황하는 모습과 비교하고 ‘紫鰐 獸性, 蒼白으로 번쩍이는 上齒, 낮에 닳는 찬 혀(冷舌)’는 단테의 앞을 가로막은 야수의 의미로 이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적 자아의 ‘고통과 비애와 고독’은 극에 달하나 그는 그 고통을 극복하고 ‘蔑日의 曲’과 ‘新我的 頌’을 부르고 ‘僞의 骨董에 魅하였든 날근 나’를 버리며 끝내 ‘靜觀’과 ‘安住安定’의 경지를 얻었다는 것이다.

염상섭은 황석우가 자신의 존재적 불행과 고통을 의지와 이성을 극복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관’과 ‘안주안정’의 정신이 황석우 시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

獸性/ 蒼白으로 번쩍이는 上齒, 낮에 닳는 찬 혀// 이상하다, 아-털 김흔 口腔/
검은 吮液-呼吸의 媒/ 橫呑일다 아 黑色으로 활터 물든 나여/ 弱한 魂에 滲入
하는 魔藥의 香이여// 口腔에 또 口腔, 缺牙의 가운데/ 아-裸身의 압흔 振蕩이여/
한 가운데, 한 가운데에 찌러지며, 날며 말(捲)니면서/ 어머님, 全智의 어머님, 당
신의 末兒-애닦은 나입니다.

㉠ 「新我的 序曲」: 勇士여 들으라, 未來의 門간에 나가 들으라,/ 官能의 廢圯,
아 落月의 底로,/ 고요히, 哀愁롭게/ 높은(尊) 蔑日의 曲, 新我的 頌// 僞의 骨董
에 魅한, 날근 나는 가고/ 嬰兒는 懺悔의 闇 三位一體의 胎에 頰笑하다/ 自然,
人間, 時間// 新我는 부르짖다, “오-大我的 引力에/ 感電된 肉의 刪木 - 一我,
一我야/ 新我的 피는, 세상의 비룻과 꽃혜 흘너가고, 흘러오다// 나에게 슬픔업
고, 무섭업고, 괴롭업다/ 참나-無限의 傷과 滅亡 맞게/ 아 죽음과 늙음은/ 調和
의 花火일다, 夕宴일다,”라고.

㉡ 「揶揄」: 君의 肉-찬 가을, 굶은 겨울/ 君아 그대 한번 입 다르면// 君의 靈
-眞理의 씩 나오는 부드러운 봄/ 君아 그대 한번 눈 다르면// 君의 眼-闇의 綠
門에 드는 新月/ 君아, 그대 한번 戀人과 向하면.

하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성과 정신에 의한 상황과 조건의 극복이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대상을 압도하는 이성과 정신의 힘 그것이 바로 ‘정이 이지의 지배를 받는 심경’의 일차적 의미내용인 것이다. 문학은 감정의 분출에 그쳐서는 안되며 그 감정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엄정한 이지의 구성물이 되어야 한다는 염상섭의 문학론이 제시된 것이다.

이 글은 3.1운동의 와중인 1919년 3월 6일 오사카에서 쓰여졌다. 그럼에도 근대문학의 본질에 대한 차가운 응시를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1919년의 염상섭은 민족의 발견에 대한 걱정적 내면과 근대문학의 본질에 대한 냉정한 인식의 공존이란 의식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황석우와 염상섭의 관계가 단순히 문학적인 차원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조두섭 교수는 황석우의 시론인 「詩話」를²⁹⁾ 아나키즘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내용이 개인의 자유, 개성, 양심을 강조하는 아나키즘 담론과 겹치고 있다고 주장했다.³⁰⁾ 조교수의 논의는 황석우의 아나키즘적 사상이 문학론에까지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는 ‘시인이 현실의 속악한 세계를 벗어나 신의 궁전에 들어가 자신의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는 「시화」의 내용이 아나키즘적 유토피아를 뜻하며 이는 초월적 이상세계가 아니라 당대 일본의 핵심적 아나키스트인 오스기 사카에(大杉榮)가 말한 주체의 확립과 연관된 의미로의 ‘생의 확충’을 뜻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정이 이지의 지배를 받는 심경’ 또는 ‘僞의 骨董에 魅하였든 날근 나’를 버리며 끝내 ‘靜觀’과 ‘安住安定’의 경지의 ‘新我’를 얻었다는 염상섭의 황석우 시에 대한 평가는 바로 그러한 아나키즘적 발상과 기맥이 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염상섭이 황석우를 이광수의 대척적 지점에 배치하고 자기 문학관의 기준으로 세우고자 한 것은 그러한 이념적 동질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글을 쓴 1919년 3월 6일 당시 염상섭은 스스로가 아나키즘적 입장을 지니고 있었고 황석우의 아나키스트적 활동 또한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¹⁾ 염상섭 자신은 “나는 그 詩를 처음 볼 제, (...) 象牙

29) 『매일신보』, 1919.9.22(『삼광』 3호에 재수록)

30) 조두섭, 「1920년대 한국상징주의시의 아나키즘과 연속성연구」 『우리말글』 26, 2002.

塔氏の 存在를 인제야 알게 된 것을 못그려워 하였고 恨하였소이다”³²⁾라고 하여 『삼광』 창간호에 실린 황석우의 시를 보고 처음 그를 인식했다고 말했지만 황석우 문학에 대한 의미부여의 정도를 놓고 볼 때 그러한 진술이 과연 사실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된다. 처음 보는 작가와 작품을 그렇게 고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염상섭의 아나키즘적 태도는 「이중해방」(3호)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중해방」은 베르사이유조약을 통해 드러난 강대국들의 냉혹한 세계지배 논리에 대한 실망을 담고 있는 글이다. 이 조약에 의해 3.1운동의 기폭제였던 민족자결의 원칙은 비유럽 세계의 식민지 혹은 종속국에는 적용되지 않는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다.

전쟁이 끝났다. 巴里의 소위 미증유 虹다는 세계 개조의 회의도, 푸르락 불그락하면서도 하여간 무사히 최후의 막이 나린 모양이다. 그 결과 세계지도의 빛(色)이 변하였다. 巷閭의 俗衆은 이것을 가라쳐 같아디, 세계는 개조되었다, 인류는 영원한 ‘유—토피아’ 화단 아리에 木枕을 놓히 귀고 잘 수 있다고, 썬든다. 그러나 나의 눈에는 장군의 胸間에 보지 못했던 훈장이, 또 훈개 매여 달린 것 밖에 빛치지 않는다. 과연 그 이상의 변화가 없다.³³⁾

파리강화회의의 결과를 장군의 훈장에 비유하는 차가운 야유 속에서 염상섭이 느낀 정신적 실망의 정도가 감지된다. 그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모든 당위적 가치가 국가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멸되는 것을 지켜보았던 것이다.

31) 아나키스트로서의 황석우가 지닌 면모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는 상황이다. 황석우는 1916년 2월 초순 자신이 일본에서 발행한 잡지 『近代思潮』 200부를 가지고 귀국, 국내 학생들에게 배포하려다 체포되기도 했으며 이후 아나키스트 단체 黑壽會(1921)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다. 1921년 일본에서 변희용, 조봉암, 김약수, 원종린 등과 함께 사키이 도시히코(堺利彦), 오스기 사카에(大衫榮) 등 좌익 거물들과 교류했으며 1922년에는 동경고학생동우회의 계급투쟁선언문인 「전국노동자 계급에 격함」에 김약수, 김사국, 정태신, 이익상, 박열, 원종린 등과 함께 서명하기도 하였다.(이호룡,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지식산업사, 2001)

32) 염상섭, 「상아탑형씨」 『삼광』 2호, 40면.

33) 염상섭, 「이중해방」 『삼광』 3호, 3면.

3월 16일 오사카 시위 때 발표한 선언문에서 “평화의 제단에 숭고한 희생으로 제공된 삼천만의 亡靈에 의하여 最히 雄辯되게 또 最히 痛切히 吾人에게 교훈을 준 것은 실로 민족자결주의의 오직 一言이다”³⁴⁾라고 확신한 것은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염상섭이 지닌 이념의 수위가 높아진 것은 확실히 이러한 좌절감과 관련되어 있다. “해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개조, 해방을 의미치 않는 개조, 부분적, 비세계적 개조는 쓸데 없다. 또 다른 새로운 화근을 잉태한 개조인 짜담”이라는 단호의 어조 속에 그러한 절망에서 비롯된 확신이 느껴진다.

微嗅衝鼻호는 구도덕의 질곡으로부터 신시대의 新人을, 頑冥固陋호는 노부형으로부터 청년을, 남자로부터 부인을, 舊慣陋習의 鍊壁으로 擁圍호는 가정으로부터 개인을, 노동 과잉과 생활난의 堅牢호는 鐵鎖로부터 직공을, 자본주의 찻죽으로부터 노동자를, 전제의 羈絆으로부터 민중을, 모든 권위로부터 民主 “Democracy”에 철저히 해방호여야 비로소 세계는 개조되고, 이상의 사회는 건설되며, 인류의 무한호는 향상과 행복을 보장할수있다.³⁵⁾

위 글의 내용은 반권위와 반권력에 기반해 정신적·제도적·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며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 되기를 지향했던 당시 일본 아나키즘 운동, 특히 오스기 사케에(大杉榮)의 관점이 뚜렷하다.³⁶⁾ “권위의 교대! 실로, 인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다”라는 외침과 함께 개조운동의 본질을 “인류로 하여금, 문명의 盜요 人道에 賊인, 불합리 沒道義호는, 頑冥不逞 專橫暴戾호는 一切의 권위로부터 완전히, 조금도 양보치 안코, 해방식화라는 심각한 자각과, 고매호는 이상과, 熱烈호는 誠意와, 절실호는 갈망”이라고 규정한 후 그 ‘개조’의 결과로 “내적 해방과 외적 해방, 영의 해방과 육의 해방, 정치생활의 해방과 경제생활의 해방”을 동시에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중해방」의 내용 속에는 불세비키 혁명과의 차별적 의식이 분명했던 아나키즘 운동의 인간중심적 태도가

3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Ⅲ, 1970, 963면(김윤식, 『염상섭연구』 56면에서 재인용)

35) 염상섭 「이중해방」 『삼광』 3호, 5면.

36)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2001, 52~58면.

명료하게 드러나 있다.

염상섭은 1962년 『사상계』에 기고한 「황보문단회상기」에서 자신이 요코하마(橫濱) 복음인쇄소에 노동자로 취직한 것이 “노동운동-그 때의 술어로는 제삼계급 해방운동에 공명하였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³⁷⁾는데 있다고 회고했다. 그리고 자신이 일본 ‘무산자운동의 지도층과 접촉’했음도 밝혔다. ‘지도층과의 접촉’이란 표현은 염상섭이 아나키즘운동과 실제적 관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호룡의 연구에 의하면 1914년 1월 오사카에서 조선인천목회가 한국인 아나키스트에 의해 조직되었다가 해산된 후 같은 해 9월 정태신에 의해 재발족, 1916년까지 14회에 걸친 정례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태신이 1915년 1월 중국으로 간 후에는 동경에서 온 아나코생디칼리스트인 나경석이 그 모임을 統率했다.³⁸⁾ 나경석은 바로 나혜석의 오빠이다. 1910년대 후반 나혜석과의 만남을 각별하게 기억했던 염상섭이지만 그보다 이른 시기인 1915년 19세의 나이로 京都府立第二中學을 다니던 그가 아나키스트 나경석을 오사카에서 만났는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염상섭과 아나키즘의 만남이 과연 나경석을 매개로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의 출현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보영 교수는 염상섭의 좌경화에 오스카 와일드의 영향이 컸을 것이라 추정하고 특히 오스카 와일드의 「사회주의 하의 인간의 영혼」(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³⁹⁾ 이보영 교수는 염상섭이 「암야」에서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을 강조한 것을 와일드 평론의 직접적 영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노동 자체에 대해서는 ‘생명의 발로’, ‘창조 혹은 개조의 환희’ ‘행복의 원천’ ‘가치의 본체’와 같이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노동운동의 경향과 노동의 진의」(『동아일보』 1920.4.20~26)도 와일드의 이상주의와 관계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이상적 사회주의가 노동자에 대한 소시민적 거리감을 만들고, 염상섭으로 하여금 사회주의를 승인하면서도 피압박계층으로서의 노동자와 연대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이보영 교수의 시각이다.

37) 염상섭, 「황보문단회상기」 『염상섭전집』 12, 민음사, 1987, 227면.

38) 이호룡, 앞의 책, 113~114면.

39) 이보영, 「염상섭과 사회주의」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429~432.

이보영 교수의 분석은 매우 날카로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는 오스카 와일드의 아나키스트적인 면모를 간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손 쉬한에 의하면 「사회주의 하의 인간의 영혼」(The Soul of Man Under Socialism)은 “서로 모순되는 사회주의의 요구와 자유로운 개인의 정신을 하나로 엮음으로써 아나키즘의 이상을 정확히 표현”한 문건이다.⁴⁰⁾ 또한 이 글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1번째 판에 실린 아나키즘에 관한 크로포트킨의 글과도 비슷하다고 한다. 와일드의 개성해방론과 자유지상주의, 철저한 반권위적 실천, 그의 작품이 특별히 강조하는 중산계급의 도덕관에 대한 비판과 공격 등은 염상섭의 사유와 작품 속에 흐르는 어떤 정신과 매우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

불세비즘적 사회주의의 기준으로 볼 때 염상섭의 태도는 노동자와의 연대감이 부족하며 이상주의적 노동관의 소유자로 인식되어 결과적으로 불철저한 사회주의자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경화된 이념을 거부하는 아나키즘의 관점에 의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필자는 1920년 『동아일보』에 발표한 「노동운동의 경향과 노동의 진의」를 당시 일본 아나키즘의 주류적 경향이었던 아나코생디칼리즘과 염상섭과의 연관을 따져 보는데 필요한 자료로 생각하고 있다.⁴¹⁾

아나키즘이라는 관점을 통해 1920년대 염상섭을 분석할 때 지금과는 다른 염상섭 이해와 문학사의 구도조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에 쓰여질 「아나키즘과 염상섭 : 1920년대 염상섭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통해 구체화하려고 한다.

2. 「박래묘」

40) 손 쉬한(조준상 역), 『우리시대의 아나키즘』, 필맥, 2003, 59면.

41) 이호룡은 1910년대 국내 아나키즘이 아나코코뮤니즘인 것에 반해 일본은 아나코생디칼리즘이 주류였다고 파악하고 있다. 전자는 사회부조론을 통해 제국주의 인식론인 사회진화론을 극복하려는 의도와 관련되어 있었다. 후자는 일체의 정치운동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부정하며 노동운동을 통해 사회혁명을 달성하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생산과 관리를 노동자 스스로 장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고 한다.(이호룡, 앞의 책, 93면)

-‘탈식민’의 문학적 실천

먼저 지적해야 하는 것은 「박래묘」가 소세키의 소설 양식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소세키를 전범화하고 따르려는 의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염상섭의 소세키 패러디는 소세키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을 비판하고 희화화하려는 명백한 목적의식의 결과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은 1910년대의 사유로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갓흔 고양이 족속은 머리쌀 압흔 족보란 것이 업지만은, 제일 갓가운 계통으로만 보아도 爲先 일본의 일류작가 夏目漱石君을 서기 겸 식객으로 생활비를 주어가며 유명흔 『나는 고양이다』라는 걸작을 지은 無名 猫氏가 나의 祖父다. 우리 하라버님의 공적을 자랑흔는 것은 안이나, 진담의 말이지 중학교 교원으로 월급 삼사십원에 목을 매이고 회(灰)박을 쓰고 일생을 마칠 漱石君이, 작고흔 뒤까지라도 후생들의게 漱石先生 漱石先生이라고 경모를 받게 되었을 뿐 안이라, 잔돈 兩이라도 모아노코 편안히 瞑目하게 된 것이, 다—우리 祖父의 덕택이였다.(「박래묘」『삼광』 3호, 19면)

자신이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 등장하는 고양이의 손자이고 소세키의 출세와 치부는 자기 조부가 “서기 겸 식객으로 생활비를 주어가며 유명한 『나는 고양이다』라는 걸작”을 짓게 한 덕택이라는 말, 그것도 “중학교 교원으로 월급 삼사십원에 목을 매이고 회(灰)박을 쓰고 일생을 마칠 漱石君”이라는 표현이 곁들여진 채 이루어진 이 한 문장에서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나쓰메 소세키의 권위는 여지없이 해체되고 붕괴된다. 대단히 기발하고 과감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박래묘’의 성명은 高麗이니 소세키를 출세시킨 고양이의 원적은 식민지 조선인 것이다. 식민지에 원적을 두고 고려시대에 일본에 귀화한 고양이의 후손에 의해 겨우 출세하게된 나쓰메 소세키, 그가 지금 일본 열도를 울리는 최고작가가 되었다는 설정이 이 소설의 기본구도이다.

나쓰메 소세키는 살아있을 때 이미 국민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그의 처녀작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의 근대문학적 위상은 확고했다. 공교롭게도 나쓰메

소세키와 같은 날(1916.12.9) 죽은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군인정치가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원수의 사거에 일본 정부가 국장을 선포했지만 언론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나쓰메 소세키에 집중되었다는 것은⁴²⁾ 당시 그의 위상을 가늠케 하는 하나의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1918년 나쓰메 소세키가 죽은 지 2년 만에 이와나미서점은 13권으로 전집을 간행하여 그의 사회역사적 위상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16세부터 7년 간 일본에서 제국의 교육을 받은 염상섭이, 그것도 문학청년의 입장에서 자신이 사숙했을 수도 있는 당대 일본문학의 대표를 상대해 이러한 태도를 보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보성학교 동창 石松 金炯元이 염상섭의 녹록치 않은 기질로 설명한 ‘이그죽대는 투’⁴³⁾와 같은 생래적 반골의식과도 관련될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 역시 3.1운동을 통해 얻어진 ‘민족의 발견’과 아나키즘적 가치에 근거한 제국 일본에 대한 부정 심리일 것이다.

나쓰메 소세키가 근대 일본의 군국주의와 식민지 침략에 대해 반성적 사유를 갖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관대하기까지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상적 제도적 기반으로서 근대 천황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그간의 소세키 연구에서 이미 밝혀져 있는 일이다.⁴⁴⁾ 특히 소세키가 1909년 9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만주와 한국을 여행하고 『東京朝日新聞』·『大阪朝日新聞』에 연재한 기행문 「滿韓」은 소세키의 동아시아관, 그리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문건으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이 문헌에 대한 비판적 연구자들의 입장은 나쓰메 소세키의 인식이 일본 식민주의의 연장선에 서있었다는 점으로 모아져 있다. 식민 침략을 이론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데 활용된 ‘문명과 야만’이란 식민주의적 이분법이 그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극단적으로 말하면 나쓰메 소세키는 결코 ‘만한’에 가지 않은 것이

42) 유상희, 『나쓰메소세키연구』 보고사, 2001, 9면.

43) 김형원, 「紹介一言」, 『생장』 2호, 1925.2 (주근옥, 『석송김형원연구』, 29면에서 재인용)

44) 이점에 대해서는 유상희의 앞의 책 제5장 「소세키의 식민지 및 천황제 인식」과 그 장의 후에 제시된 연구목록을 참고할 것.

다. 소세키가 여행을 한 것은 중국 동북부 및 조선반도 상에 구축된 일본인 공동체 안에 불과하다”⁴⁵⁾라는 지적이나 소세키가 자신의 문학에서 인간의 내면에 집착한 것도 결국 제국주의 문제를 회피하는데서 생겨난 것이며 「만한」은 그러한 도정으로 가는 분기점이었다는 분석은⁴⁶⁾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소세키의 위치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제공한다.

한편 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는 일본의 근대에 내장된 심리적 기제를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적 의식’으로 규정하고 그 상호보완 관계를 표상한 표현자의 한사람으로 소세키를 지목했다.⁴⁷⁾ 즉 소세키가 서구에 대한 열등감과 주변국에 대한 가학적 침략의식의 공존 속에서 움직였던 제국 일본의 국가 심리를 문학적인 측면에서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나쓰메 소세키는 동아시아적 근대에 대한 인류애적 혹은 휴머니즘적 전망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소세키는 일본의 근대작가가 일본이 수행한 군국주의적 근대체험의 반성적 주체로서의 자각을 확보하는 것에 의해서만 동아시아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는 작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다. 식민지배국과 피식민지국이 혼재된 문화변주안에서 피식민지(민족)의 처지와 삶까지 포괄할 수 있을 때 그 문화지형의 보편적 작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소세키는 사고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아시아적 피압박 인민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세키의 작가적 위상과 작품의 수준은 고평될 계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소세키는 철저히 ‘일본 안’의 작가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과 만주를 여행하면서도 그 지리적 실감을 외면했다는 도모다(友田悅生)의 말대로 소세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었다.

여기서 나쓰메 소세키가 염상섭에게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가 떠오른다. 『박래묘』를 지은 염상섭의 의식 이면에는 왜 우리가 일본인처럼 소세키를 찬양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강하게 들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45) 友田悦生, 「夏目漱石と中國・朝鮮」, 芦谷信和 外, 『作家のアジア體驗』, 世界思想社, 1996(유상희, 앞의 책, 161~162면에서 재인용).

46) 朴春日, 『日本近代文學における朝鮮像』, 未來社, 1985, 87면(유상희, 앞의 책, 164면에서 재인용)

47) 고모리 요이치(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62면.

일본 근대문학, 나아가 일본의 근대 전체에 대한 평가와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염상섭은 나쓰메 소세키를 ‘그들의 영역’으로 후퇴시키고 ‘일본 작가’의 범주로 축소시켰다. 자신의 문학적·이념적 실천 속에서 소세키를 해체해야 할 ‘권위’로 설정했던 것이다. 세계적 보편성과 만인 소통의 가능성을 전제한 술어인 ‘근대 작가’라는 개념의 박탈이 기도되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인들이 소세키를 톨스토이나 토스토예프스키에 견주는 의식적 자기과장이 차단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나쓰메 소세키를 통해 일본 근대문화와 사상을 세계적인 것으로 확산시키려 한 노력은 적어도 염상섭의 차원에서는 관철되지 못했다. 여기서 제국 일본의 영광과 권위는 일순간에 휘발되어 버렸다. 확실히 「박래묘」에는 일본이 달성한 근대를 보편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려는 의식적 태도가 명확히 내재해 있다. 염상섭에 의해 전범은 제거되었고 正典은 부정되었다. 당시의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가시적 문명의 세계를 상대화하고 축소하며 일그러트리는 염상섭의 태도는 현대적 개념으로 말하면 문학을 통한 포스트콜로니얼의 실천이었다. 인간 일반에 대한 소세키의 풍자를 제국 일본에 대한 풍자로 전화시킨 「박래묘」에는 ‘公憤’에 근거한 ‘신성한 증오’(루카치의 용어)가 수행하는 풍자문학의 정치적 위력이 발휘되어 있다.

「박래묘」의 두번째 표적은 조선이다. 「박래묘」라는 제목에서도 조선의 현실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특히 조선인 상류층들이 갖고 있는 일본 근대에 대한 천박한 동경이 비판의 일차적 목표가 되었다. 여기서 고모리 요이치의 개념으로 말하면 ‘식민지적 무의식’에 길들여지고 있던 조선인들의 현실이 비판적으로 해체, 공개된다. 문제는 이것이 상류층 조선인에 대한 공격에 그치지 않고 일본에 대한 비판까지 연결된다는 점이다.

“동경고등공업학교 학생실험실에서 집어온 알콜(酒精)병을 내여 닛코도 ‘이것이 박래의 향수울시다’라고만 하면 감지덕지하야, 武内大臣을 뒤紙감이나 던지듯이 한 장, 두 장 함부로 던지고 사가지고 가서, 鏡臺와 씨름을 하는 소위 현대신사라는 괴물이 유행하고, 나막신 街家(下駄屋)에서 너름새 조흔 番頭(점원)가 ‘마마님 이것이 이번에 신착한 박래품이올시다’라고 느러 노오면, 나막신(下駄)이 어느 곳 특산물인지도 모르고, ‘박래’라는 바람에 처너부랄이나 었

은 듯이, 말간, 고치장 짝지를 폴폴 날리는 귀부인 숙부인 정경부인의 粗製濫造時代”⁴⁸⁾이라는 풍자적 표현 속에는 그러한 이중의 비판이 들어 있다.

첫째는 일본의 것을 숭배하는 조선인 상류층의 무목적적 추종심리에 대한 공격이다. 이를 통해 그들 신분의 사회적 가치는 사라졌다. 다른 하나는 그들이 추종하는 ‘박래’가 곧 가짜라는, 일본 근대에 대한 부정이다. 여기서 일본은 지배하는 자일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이기도 하다. 속이는 자로서의 일본의 본질은 곧 지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게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윤리 부재의 상태에서 구축된 권위를 표상하게되고 윤리가 거세된 권위는 곧 공적 가치와 무관한 폭력으로 인식된다.

박래품으로 의미화된 근대 일본의 사이비성과 윤리부재, 그리고 이들의 존재를 유지케하는 주체로 설정된 ‘현대신사’와 ‘마마님’이란 조선인 지배층에 대한 다차원적 비판을 통해 염상섭은 독자의 의식을 일본과 조선의 상류층으로부터 분리시켰다. 여기서 일본과 조선의 상류층을 의식적으로 배제한 새로운 인식 주체가 세워졌다. 그는 곧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반성적·비판적 주체이다. 그 인식주체의 산출이 「박래묘」의 풍자가 의도하는 목표라고 생각한다.

「박래묘」에서 염상섭이 보여준 탈식민적 실천은 유니크하고 경쾌했다. 그런데 그 경향은 새로운 창작방법으로 대체되었다. 「암야」에서 「표본실의 청개고리」로 이어지는 작품에서 염상섭은 「박래묘」와는 전혀 다른 소설의 길을 열었고 그 방향은 이후 염상섭 소설의 중요한 특질이 되었다.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은 이후 연구의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방법적 전환이 곧 탈식민을 위한 전략적 언어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점을 포함해 20년대 염상섭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IV. 맺음말

잡지 『삼광』에 발표된 염상섭 초기자료들은 3.1운동 직후 일본에서 이루어진 염상섭의 작품활동 뿐만 아니라 당시 그가 지녔던 정치·사회의식에 대한

48) 염상섭, 「박래묘」 『삼광』 3호, 20면.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1919년의 염상섭이 아나키즘에 기울어졌다는 것, 그러한 사상적 편력이 황석우 등 아나키스트 그룹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후 염상섭의 문학적 행보를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단서이다. 기왕의 염상섭 연구는 이러한 염상섭의 사상적 특수성에 대한 명료한 분석이 결여된 채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엇인가 모호한 상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아나키즘과 염상섭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폐허』를 포함한 1920년대 초반의 다양한 문학운동을 당대 사회운동과의 연관 속에서 재분석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염상섭 개인이 한국의 계급문제운동과 비판적 거리를 두었던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도 적실한 해답을 제공하리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염상섭과 아나키즘’이라는 문제의식은 근대문학의 구도와 관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과장을 제기한다. 즉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파적 민족주의에 대한 안티테제로서의 프로문학이라는 이해방식은 재조정될 여지가 생기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염상섭과 아나키즘’이라는 발상은 우파적 민족주의와 좌파적 프로문학이라는 이원론적 구도에 제 삼의 입장을 첨가함으로써 임화의 신문학사의 구도에 사로잡혀왔던 1980년대 이래 근대문학 연구의 경향을 넘어선 중층적 사유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실증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들이다. 여기에는 근대문학을 구성하고 진행시켜온 동력들의 성격과 상호관계에 대한 종합적 재검토의 요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이 그러한 문제들을 새롭게 논의되기 위한 작은 출발점의 하나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Samkwang*(삼광), Yom Sang-sup(염상섭), Hwang Suk-u(황석우), anarchism(아나키즘), postcolonial practice(탈식민적 실천)

【자료】

舶來貓

露月

나는 ‘舶來貓’을 시다. 라고 하면 눈 뜬 장님은, 姓이朴哥요 일흠이來猫인 줄로 지레 짐작을 할 터이지만, 實上 나는 朝鮮사람도 안이요 꼬랑지 달닌 장쾌도 안이다. 나의 本名은 ‘고마’라고 하는 大和猫族이다. 하나 나의 姓名을 漢字로는 ‘高麗’라고 쓰는 것을 보면 姓이高哥요, 일흠이麗인지, 或은 우리 先祖가 高麗時代에 日本에 歸化하여 그 後裔가 나인지 모르겠지만, 如何間 以前主人은 나를 ‘고마 고마’라고 불너왔다. 萬一 그러타 하면, 내가 이 番에 朝鮮에 건너온 것은, 偶然히 先祖의 故郷을 訪問한 意味가 되는 고로 될 수 있스면 展墓라도 해야 불가 한다. 그러나 우리 先祖 中에 하다 못히 어느 고을 守令이라도 한아 었어 히서 시골길의 長壽(四標) 갖흔 善政碑 個나 었어 세웠스면 先祖의 墓所를 차질 수도 있고, 兩班 行勢도 톡톡히 하겠지만은 그것조차 업스니 하는 수 업다. 如何間 무엇으로 보든지, 나도 넷적의 朝鮮으로 말하면 奸臣輔國이니 嚮官公이니, 買位大夫니 하는 玉冠子 金冠子짜리의 멧 代孫 아 모개라는 赫赫한 名門巨族은 안일망정, 白首의 불常놀이 안인 것은 分明하다. 우리 갖흔 고양이 族屬은 머리쌀 압흔 族譜란 것이 업지만은, 第一 갖가운 系統으로만 보아도 爲先 日本의 一流作家 夏目漱石君을 書記 兼 食客으로 生活費를 주어가며 有名한 『나는 고양이다』라는 傑作을 지은 無名猫氏가 나의 祖父다. 우리 하라버님의 功蹟을 자랑하는 것은 안이나, 眞談의 말이지 中學校敎員으로 月給 三四十圓에 목을 매이고 회(灰)박을 쓰고 一生을 마칠 漱石君이, 作故한 뒤까지라도 後生들의게 漱石先生 漱石先生이라고 敬慕를 받게 되엿을 뿐 안이라, 잔돈 兩이라도 모아노코 便宜히 瞑目하게 된 것이, 다—우리 祖父의 德澤이엿다.

그러나 苟且한 사람이 잘살 썩 지내든 이야기를 자랑삼아 하듯이, 단침(甘睡)을 삼켜가며 家門자랑을 하는 것은 封建時代를 꿈꾸는 朝鮮의 所謂 여덜

八字 거름에 엉덩이짓 ㅎ는 兩班의 티라고, 非難攻擊이 드러올가 보아 고만두 거니와 이리케 赫赫 ㅎ 名族인 내가 웨 이갓치 墮落 ㅎ 계집년을 짜라서 朝鮮 ㄷ 지 글너왔는지 生覺 ㅎ 사록 氣가 막힌다. 더구나 여기 온 뒤로는 드러보지도 못 ㅎ든, 朝鮮사람이나 淸人의 일홈갓흔 ‘舶來猫’라는 일홈을 쓰게 된 것은 一代의 恥辱이다. 東京高等工業學校 學生實驗室에서 집어온 알콜(酒精)瓶을 내여 ㄴ코도 ‘이것이 舶來의 香水올시다’라고만 ㅎ면 甘之德之 ㅎ야, 武內大臣을 뒤 紙감이나 던지듯이 한 張, 두 張 함부로 던지고 사가지고 가서, 鏡臺와 씨름을 ㅎ는 所謂 現代紳士라는 怪物이 流行 ㅎ고, 나막신 街家(下駄屋)에서 너름새 조흔 番頭(店員)가 ‘마마님 이것이 이番에 新着 ㅎ 舶來品이올시다’라고 느러 노 오면, 나막신(下駄)이 어느 곳 特産物인지도 모르고, ‘舶來’라는 바람에 處女부 딸이나 었은 듯이, 말간, 고치장 짝지를 폴폴 날니는 貴婦人 淑婦人 貞卿婦人의 粗製濫造時代니가, 나도 舶來한 나비라면 엉덩춤이 나서 쥐(鼠) 마리나 잡을 줄 알고, 비위를 맞치는 酬酌인지, 或은 下關서 釜山 ㄷ지 겨우 十餘時間의 連絡船 신세를 지었스니가 비로 왔다 ㅎ야 和製와 洋製의 分間을 못 ㅎ는지 모르나, 나를 輕薄 ㅎ 現代 人種과 同類視 ㅎ는 것이 第一 패심하다. 더구나 우리의 族稱되는 ‘猫’字 우에다가, 코주부의 빠다 냄새나는 ‘舶來’二字를 붙쳐서 부르는 것은 우리 猫族全體의 큰 不名譽요, 同俸들이게 對 ㅎ야서도 무엇이랴고 辨明 ㅎ여야 조홀지 참 面目업는 터이다. 분 ㅎ고 切痛 ㅎ 품으로 말 ㅎ면 처음부터 곳 抗議를 提出 ㅎ야 ‘고마’라는 어엿 ㅎ 본名을 쓰게 ㅎ고 십지만, 우리가 늘 ㅎ는 말갓치 저희들이 지절대는 말은 大綱 아라 드러도 사람이란 것은 웨 그리 투미 ㅎ지 조금도 言語가 通치 못 ㅎ기 짜문에, 只今것 분을 꼴덕꼴덕 참고 지나온다. 이런 生覺 저런 生覺 ㅎ고보면 背恩忘德의 몸쓸 놈이라 ㅎ겟지만 내가 애當初에 그까진 淫賣가 되다만 靜子란 년을 쫓차온 것이 不察이다. 그도 그러치만, 그러케 말 ㅎ면 맨 처음에 靜子の 집으로 간 것이 一生의 失敗이였다.

大體 사람처럼 제 억지 제 고집을 세우는 動物은 업다. 더구나 無教育 ㅎ 所見업는 女子에 이르러서는 ㄷ ㄷ 안차고 악지세고 利己心만코 남의 事情 모르는 品이, 어린 兒孩나 다름업다 生覺 ㅎ다. 元是 내가 靜子の 집으로 살나 드러간 것도, 나의 意思대로 내 풀에 간 것은 안이였다. 이 곳(朝鮮) 風俗에는,

婚事を 定婚제 當者の 意思是 아조 蔑視하고 父母만 主張한다드니, 나는 나의 主見컨양 우리 父母의 承諾도 업시, 強盜질을 한다심히 해야 붓드리 가기 써 문에 엇절수 업시 잡혀간 것이였다. 그싸위 人權—아차 猫權蹂躪, 強盜劫奪의 重罪를 犯하면서, 내가 부엌 구석에서 저희들 먹고 난 떡직기를 좀 失禮하면 王방울갓흔 눈을 홉 쓰고 ‘요 비탈먹을 고양이, 또 도적질을 하는구나’하며 부지깅이를 चु켜드니, 도모지 世上이 亡히도 分數가 잊지, 비곱하셔 먹는 것이 무슨 罪며, 罪를 싸지자면 저희들 所謂 人類라는 것은 ‘時計집’은 姑捨하고 ‘벽돌집’ 맛을 보아도 着實히 불겔네들이 무슨 코 큰 소린지, 알 수가 업다. 이아가 새여서 空然히 분푸리를 하였지만, 앓가 말한 것갓치 날로 말하면 移住者의 後孫인 듯 하나, 如何間 祖父代부터는 純全히 徐鬱胎生(江戸子)이다. 東京에서도 ‘下町’이라면 엇더한 人種이 살고, 또 엇더한 氣風이 잇는지를 大概는 斟酌하겠지만, 그 中에도 나는 神田區의 엇더한 미장이집 뒤間 엽혀서 胎줄을 끈었다. 諸君도 알겠지만 우리 族屬은 猶太民族과 아모 因緣은 업스나, ‘나흐라, 增殖식히라’는 所謂 아—맨黨의 偶像인지 神인지의 命令을 직히느라고, 純胎줄에 세—넛式 나뉠는 것이 普通이다. 爲先 내가 날적만 히도 적어도 三兄弟는 낫슬터인데, 겨우 철이 날만한 쟈 드르니가, 三七日안에 모다 盜賊질 해야 갓다 한다. 그 中에도 내가 特別히 그 미장이집을 썬날 썬지, 母親 膝下에 잇게 되었든 것은 天幸이든지 내가 막내둥이였든 故로 潺弱하여서, 쥐흔 마리 잡을 줄도 몰랐든 썬문이엇섯다. 어머니가 밤이면 늘 나를 끼고 드러누어 젖을 물니며 ‘사람처럼 末種의 動物은 업서! 제 慾心 채임도 分數가 잊지, 제 子息 貴흔 줄만 알고 남의 子息 貴여운줄 모르나? 앓가만 히도 그러치, 조고만 꼬맹이가 남의 어린 것을 부등켜 안고 다니며 別別 오독육갑의 것을 다—해야도 가만 내버려두더니, 참다 참다 못하야 손등 위에 생책이 혼아 넷다고, 위로 아리로 집안이 쓰러나서 닳친 兒孩보다 더 법석을 하며, 내쫓느니 짜려주느니 하니 이런 境遇도 잇단 말인가?’ 하시며 실성들닌 兩班오양으로 잔말하시더니, 그썬는 철이 업서 무슨 소리인지 몰났스나, 只今 生覺해야보면 참 事理에 合當흔 오른 말씀이다. 이와 갓치 不平도 만코, 쥐 혼아 잡을 줄 모르는 체신이 비아지 것 먹고 作亂만 한다고 구박이 滋甚하였스나, 如何間 손에 비운 才操가 엇스니가, 잡어갈 念慮도 업고 모셔갈 근심도 업시 두어 달

동안은 泰平世界로 지냈다.

元是 나는 망내등인고로, 사람도 그런 貌樣이지만 어리광도甚하였고 作亂도 꽤 쳤다. 하로는 하도 치웁기에, 집안 食口가 고주가 되야 갖득한 壁이 문어저라 ㅎ고 코를 골며 자는 틈을 타서, 어머님은 아래 層에서 夫婦가 자는 발치로 파고드러 가고, 나는 二層에 올라가서 어린 兒孩의 발치에 드러 누었다. 폭은폭은한 숨이불을 덮고 드러 누어서, 게지개를 四肢가 끈어지라고 키고 나니가, 어렸든 몸이 확 풀려서 그리히든지, 오즘이 마려워 죽을 地境이다. 朝鮮風俗 갖히든면 房안에 溺江이 잇서서 그런 썩에는 安東맛츄이지만, 衛生인지 쏹싸개인지 하느라고 東京 近處에는 그런 것도 업다. 아모리 生覺해 보아도 꼭 밧것으로 나가야만 썸이필 모양이나, 일썸 녹인 몸을 쏸다시 찬바람에 쏘일 生覺ㅎ니 氣가 막힌다. ㅎ는 수업시 그 자리에다 싸놋코, 살그먼이 이러나서 이쑤에는 엽호로 가서 누을 作定으로 이불을 살작 들고 가만가만 드러가라니가, 運數가 사나우면 업드러서도 코가 썸여진다더니 일이 안되느라고 몸둥아리가 半도 채 못 드러가서 꼬맹이의 왼쪽팔(左腕)을 보기쫓케 밟는 바람에, 輕風하듯이 발닥 이러나서 킁킁대며 썸지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벼락갓치 부른다. 내가 사람갓흔 賤種이엿드면 이런 境遇에 쥐구멍을 찾느라고 窓을 부시고라도 썸여나가거나, 그러치 안으면 도마우의 시—칼이라도 집어다가 죽이느니 살니느니ㅎ며 威脅이라도 ㅎ겟지만, 벼루이 되야 ㅎ는 수업시 이부자리에 오즘을 좀 썸슬망정, 나의게는 良心이란 것이 잇고, 쏸 치위에 못익어 暫間同衾ㅎ자는 것이 仰天腑地ㅎ야 조금도 붓그러울 것이 업슴으로, 나는 古代 武士의 姿勢로 압발을 세우고 正座에 泰然自若히 안저서 눈치만 보고 잇섯다. 이 법석통에 엽해서 자든 누의 계집애가 썸여 이러나서 오라비 동성의 팔뚝을 보더니, 벼락갓치 달녀드러 人事 私情업썸 나의 요, 가는 목아지를 바서저라 ㅎ고 담삭 잡아, 입쌀을 악물고 핑핑 도니더니 窓박으로 내여 던진다. 德澤으로 밧툼은 한아 부러졌지만 어린 생각에도 말할 수 업는 快感을 처음 經驗한 것은, 자든 處女의 썸듯한 손—더구나 美人의—간지러운 溫氣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주는 刺戟이엿다. 動物 中 本能的 獸性을 十二分 發輝ㅎ는 官能主義者의 典型이라 할 만한 「사람」은, 죽어도 美人의 무르팍에서 걱구러지겟다ㅎ

나, 이는 人類뿐만 아니라 우리 猫族도 그러한 傾向이 있다. 그날 밤에 그 갓치 鬍鬚을 보고도 미운 生覺은 꿈에도 업고 또 한 번 그 손이 목아지를 잡아주었스면……이라는, 다—라운, 그러나 懇切한 希望이 내 마음의 全部를 占領했든 것을 보아도 알겠다. 그래서 나는 나의 戀人(이라고 하면 요망스럽게 대구리에 피도 말으기 前에 戀人이다—무엇이란 말이나 하겠지만, 그런 말은 情的 教育을 無視하는 人類의게만 通用할 金言이다) 「반대기」보다도 더 어엿분 미장이의 딸의 舉動을 보라고 치운줄도 모르고 벌벌 떨며 窓틈으로 房안을 드러다 보고 서 잊었다. (續)

(『삼광』 2년 1호, 통권 3호, 1920.4.15)

참고문헌

- 『삼광』 1,2,3호
- 임화, 『신문학사』, 한길사, 1993
- 『나라사랑』 52, 외솔회, 1984.9
- 『염상섭전집』 12, 민음사, 1987
- 김윤식, 『염상섭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 김종균, 『염상섭연구』, 고려대출판부, 1974
- 유상희, 『나쓰메소세키연구』, 보고사, 2001
- 이병도, 『成己集』, 경화출판문화사, 1983
- 이보영, 『염상섭문학론』, 금문서적, 2003
- 이보영, 『난세의 문학』, 예림기획, 2001
- 이호룡, 『한국아나키즘운동사』, 지식산업사, 2001
- 조세현, 『동아시아 아나키즘, 그 반역의 역사』, 책세상, 2001
- 주근옥, 『석송 김형원 연구』, 월인, 2001
- 조두섭, 「1920년대 한국상징주의시의 아나키즘과 연속성연구」, 『우리말글』 26, 2002
- 조영복, 「1920년대 초기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시와 그 성격」, 『우리말글』 21, 2001
- 한기형, 「잡지 『신청년』 소재 근대문학 신자료」, 『대동문화연구』 41, 2002
- 한기형, 「근대잡지 『신청년』과 경성청년구락부」, 『서지학보』 26, 서지학회, 2002
- 한기형, 「습작기(1919~1920)의 심훈」, 『민족문학사연구』 22, 2003
- 손 취한(조준상 역), 『우리시대의 아나키즘』, 필맥, 2003
- 고모리 요이치(송태욱 역), 『포스트콜로니얼』, 삼인, 2002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